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부르는 노래”(설교요약)

오늘 시편은 표제어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다. 왜 다윗은 왕이면서도 궁궐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었을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궁궐에서 쫓겨나와 급히 도망을 갔는데, 가고 보니 광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다윗이 만난 광야는 힘든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곤고한지 보여준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를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간다. 그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신앙의 결단이다. 우리 또한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 인생의 광야에서 가져야 할 자세를 배워보자.

1.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평상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특히 광야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 ‘갈망’이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말한다. 죽음이 엄습해 오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성소를 찾았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의 광야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미 해답을 손에 쥔 사람이다.

2.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3~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이 성소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왔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생명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이다. 현실은 메마른 광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존재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찬양을 부르며 광야를 지나가자.

3.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시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노래한다. (5절) “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오히려 기름짐과 풍요함과 만족한 삶을 고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심을 깨달았다(6-7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믿고 즐거워하는 성도는 광야가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지금 자신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면, 낙심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며 찬송해보라, 어느새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에 들어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부르는 노래(시63:1-7)

1. 마음 열기 -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2. 경배와 찬양 - 찬 송 가 :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390장)

하나님이시여
(원제: 주는 나의...)

시편 27, 63편 유상렬 곡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로다
나의 몸과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는 말
여호와 는 - 나의 힘이요 - 여호와 는 - 나의 구원이시니 -
내가 누구를 - 두려워 하리요 - 여 호와 는 생명의 파산 처시니 -
주의 안자가 -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 여호와를 찬양하리 -
내 평생에 - 주를 찬양 하며 - 주의 이름으 - 로 내손들리라 -

Copyright (C) 1991 유상렬 . Adm. By KOMCA. Used by Permission.

3. 말씀 나누기

- (1) 한 주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누십시오.
과거 또는 현재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 (2) 성경본문과 설교요약을 읽고,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나 문장 또는 새롭게 깨달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 (3) 여러분도 다윗처럼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우심이 되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하나님은 나의 ○○○입니다.”)

4. 사역나누기

오늘 나눔 가운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떠오른 축복의 말이 있으면 나누십시오.